

## 대학 입시의<sup>1</sup> '빅뱅'<sup>2</sup>

대학 입시 제도의<sup>3</sup> 빅뱅이 시작됐다. 한낱 한시에 치른 수능<sup>4</sup> 성적<sup>5</sup> 하나만으로 거의 당락을<sup>6</sup> 결정했던<sup>U1</sup> 대학 입시가 2002학년도부터 대학마다의 선발<sup>7</sup> 기준에<sup>8</sup>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됐다. 종래의<sup>9</sup> 시험=입시라는 고정 관념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입시 제도의 대변혁이<sup>10</sup> 시작되는 것이다. 우선 75개 대학의 2002년 전형 계획을<sup>11</sup> 보면 다음 네 가지 사항이<sup>12</sup> 크게 달라진다.

첫째, 정해진 시험 일자가<sup>13</sup> 없다 할 정도로<sup>U2</sup> 특별 전형,<sup>14</sup> 수시 전형을<sup>15</sup> 통해 대학이 필요한 시기에 학생을 선발한다. 둘째, 수능 성적이든 학생부<sup>16</sup> 성적이든 총점보다는<sup>17</sup> 영역별<sup>18</sup> 점수를 중시한다. 셋째, 학과목<sup>19</sup> 이외의 인성,<sup>20</sup> 적성,<sup>21</sup> 수상<sup>22</sup> 경력,<sup>23</sup> 봉사 활동<sup>24</sup> 등을 선발의 주요 요인으로<sup>25</sup> 꼽고 있다. 넷째, 대학의 이념과<sup>26</sup> 건학 정신에<sup>27</sup> 따라 선발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.

'3대 동문'<sup>28</sup> 이나 '용감한 시민상 수상자'<sup>29</sup>를<sup>29</sup> 우대하고<sup>30</sup> 과학고<sup>31</sup> 같은 특수 목적고<sup>32</sup> 출신을 특별히 우대하겠다는 등 대학의 자율적 선발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.<sup>33</sup> 이런 대변화를 맞는<sup>U3</sup> 학부모나 학생, 그리고 교사 모두 견잡을 수 없는<sup>34</sup> 혼란에 빠질 수 있다.<sup>U4</sup> 아직 3년이 남아 있다지만 당장<sup>35</sup> 내년 고1부터 이 제도에 따라 학교는 진학을<sup>36</sup> 지도하고<sup>37</sup> 학생은 입시 준비를<sup>38</sup> 해야 한다. 교육부나<sup>39</sup> 관할<sup>40</sup> 교육청,<sup>41</sup> 일선 학교<sup>42</sup> 모두 새 제도에 따른 혼란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면서<sup>43</sup> 새 제도의 정착화를<sup>44</sup>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지덕체<sup>45</sup> 교육 개혁을<sup>46</sup> 이룩할지 자세한 지침과<sup>47</sup> 방향 제시를<sup>48</sup> 해야<sup>49</sup> 할 것이다.

대학마다 선발 기준이 워낙 다양해<sup>50</sup> 혼란스럽기까지<sup>51</sup> 하다. 혼란스러운 만큼 새 제도의 공정성에<sup>52</sup>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될<sup>53, U5</sup> 수 있다. 이에 대비해<sup>54, U6</sup> 교사와 학부모를 상대로<sup>55</sup> 한 설명회가<sup>56</sup> 여러 형태로 병행돼야<sup>57</sup> 한다. 예컨대<sup>58</sup> 한 분야에 특별한 적성을 지닌 학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<sup>59</sup> 할지 구체적이고<sup>60</sup> 명시적인<sup>61</sup> 진학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의 불안을<sup>62</sup> 해소해야<sup>U7</sup> 할 것이다.

이미 새 학교 문화<sup>63</sup> 창조를<sup>64</sup> 위한 비전이 제시된 만큼 적성에 따른 대학 선택과 지덕체를 겸비한<sup>65, U8</sup> 전인 교육의<sup>66</sup> 구체적 학습 지도안을<sup>67</sup> 제시하고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알리고 깨우쳐야 한다. 특히 유의해야<sup>68</sup> 할 점은 교사들이 작성할<sup>69</sup> 학생부 기재<sup>70</sup> 내용이다.<sup>71</sup>

수능과 학과목 성적은 객관화된지만<sup>72</sup> 인성, 적성, 봉사 활동 등 비교과<sup>73</sup> 내용 담당 교사의 주관적<sup>74</sup> 의견에 크게 좌우될<sup>75, U9</sup> 수 있다. 이 학생부의 공정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<sup>76</sup> 새 제도의 성패가<sup>77</sup> 달려 있다고<sup>U10</sup> 봐야 한다. 학생부 작성이나 각종 추천제를<sup>78</sup> 둘러싼 치맛바람<sup>79</sup> 또한 거세질<sup>U11</sup> 것이다. 이런 유혹과<sup>80</sup> 외압을<sup>81</sup> 물리치고 학교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교사의 권위<sup>82</sup> 확보밖에 다른 길이 없다. 학교에 대한 믿음, 교사에 대한 신뢰가<sup>83</sup> 새 제도의 성공의 열쇠다.<sup>U12</sup>

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. 입시가 과열된다고<sup>84</sup> 좋은 학교를 없앨 수는 없지<sup>U13</sup> 않은가. 밤새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밤새 공부해도 쓸모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게 문제다. 모순은<sup>85</sup> 고교 교육에서 그치지 않는다.<sup>U14</sup> 그렇게 어렵사리<sup>86</sup> 들어온 대학에서는 그 교과 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학원에 간다.

 CamScanner ile tarandı

<중앙일보> 사설 칼럼, 1998년 11월 3일

Kaynak: Kaynak: Integrated Korean High Advanced 2, Sungdai Choi, vd., University of Hawai Press, 2005, s:110-111

## **Konu ile ilgili sözcükler**

- 입시
- 제도
- 수능
- 성적
- 대변혁
- 특별 전형
- 학과목
- 인성
- 경력
- 이념
- 건학
- 수상자
- 과학고
- 특수 목적
- 입시 준비
- 교육부
- 교육청
- 정착화
- 지침
- 학습 지도안
- 객관화

## **Tartışma Soruları**

- Kore'deki en iyi üniversite sıralamaları
- Üniversiteye giriş sınavı sistemi
- Sınava hazırlık süreci ve bu sürecin gençler üzerindeki etkileri
- Üniversite hazırlık kursları